

序 文

祖上傳來의 忠孝思想等 훌륭한 傳統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祖上의 崇高한 敦睦精神을 이어받아 居住地의 遠近을 莫論하고 宗親相互間에 和睦의 美風을 振作시켜야 할 것이며 祖上의 燦爛한 史蹟을 後孫들에게 傳해야 할 義務가 있을 것이다 어느 家門을 莫論하고 몇 代祖가 偉大한 人物이었다고 口傳해 내려오고 있지만 考證이 될 文獻上의 記錄이 없어 안타까와하는 事例가 許多한 것이다 代代孫孫 各自가 記錄을 남기기란 容易한 일이 아닐뿐 아니라 設使 記錄을 남겼다 해도 天災地變等으로 消滅될 境遇 復舊가 不可能할 것이므로 宗中の 合議에 依하여 先祖의 業績과 代數를 体系的으로 綜合整理하여 編纂한 것이 훌륭한 우리의 民族的인 族譜인 것이다 우리 先代의 修譜沿革을 살펴보면 始祖七代孫 叅奉 循이 編纂한 明宗辛亥譜와 十三世孫 益齡 光翼이 編纂한 正祖庚申譜가 있으며 우리 中郎將公派에서는 西紀一九三〇년에 처음으로 二十世孫 圭遠이 派譜庚午譜를 編纂하였으며 이어 西紀一九六三年에 澄奎 東奎 圭洪 寬信의 印刷費 專擔喜捨와 修譜推進費 筆者負擔으로 癸卯譜 四百部를 發刊하여 全世帶에 無償配付하였다

一九七九年 濟州道宗親會總會에서 社會活動의 伸張에 따라 居住地가 國內全域에 擴散

되고 있는 實情을 勘案하여 入島後 代數誤差 登載部分의 修正等 新規修譜論이 論議되

어 現代版 洋裝單行本으로 發刊키로 議決되어 一九七九年 五月에 編纂委員會를 構成하

고 同 六月에 修譜所를 開設하여 訓練公派의 庚申譜를 發刊케 된것이다 始祖 大隱公

의 史蹟等 上系의 記錄은 舊譜와 大隱實紀에 依하여 收錄하였으며 收單 淨書 校正 過

程에서 再三連絡 또는 現地 出張等 最善을 다하였으나 單子未提出및 住所不明으로 收

錄치 못한 部分이 있을뿐만 아니라 脫字 誤字가 發生하였으며 司勇公派分은 單子提

出不應으로 收錄치 못하네 對하여 編纂 責任者로서 罪責感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修

譜所를 開設한지 十個月만에 修譜事業을 完成 八百部를 印刷 製本하여 諸宗에게 配付

케된 것은 오히려 常任委員會를 비롯한 編纂委員및 宗親會任員의 犧牲的인 努力의 結晶

임과 同時에 宗親各位의 自發的인 喜捨金據出等 積極的인 聲援에 基因된 것이므로 修

譜事業에 盡力해 주신 勞苦에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大隱實

紀및 修譜事業 推進에 團結力을 과시해주신 宗親各位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融和團結

하여 相扶相助로 和氣에 찬 雰圍氣를 造成하고 爲先事業과 後生의 育英事業에 合心盡
力하여 後孫의 無窮한 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構築하고 이를 後孫들에게 遺産
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西紀一九八〇年 庚申春

原川府院君 十九代孫 昇 奎 謹識

始祖大隱公上世系

遺印

孫後

鏡

子重亮

子演

子有寧

子彥卿

子冲孝

宋平公之曾孫

宋宋門下習秘候大

宋平章事

宋大司徒

阿淦

居離西金城

居關西洪陵

得姓始祖

宋宋門下習秘候大

宋兵部尚書

號 石川翁

武科令同正

高麗仁宗十六年

淑夫人海州表氏

一一二八）宋朝判

海州火焚橋附

同署爲長公主陪臣

入仕高麗

高麗仁宗元年戊午

宰相中門祇候

封淵城府院君

賈黃海道長淵縣

長淵派始祖

淑夫人海州吳氏

侍中尚書太保門下

侍郎挺弼之女

黃海道海州億健

里頭項洞庚坐附立

碑

子冲悌

舊譜序文

編輯辭(癸卯譜)

世譜는 國家의 國史와 같이 내 집안의 來歷을 記錄한 文獻임으로 其編輯의 目的이 先祖의 事蹟을 後生에게 傳하기 爲한 것이다 時代가 變遷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옛 族譜와 같이 特殊層만이 볼수있는 純漢文式 美文麗句로 編輯한다면 極少數 識者層의 好評은 받겠지만 一般諸宗이 解得하기 困難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世譜編纂의 根本目的에 背馳되어 先祖의 事蹟을 後進에게 傳하지 못하는 重大한 過誤를 犯하게 되는 것이다 特히 今般編輯한 世譜는 全戶數에 配譜케 되어있음으로 本譜를 編輯함에 있어서는 一般識者層의 嘲笑를 介意치 않고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理解할 수 있을까 하는데 나의 온 精力을 傾注하였으니 識者層은 編輯者의 苦衷를 理解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燦然한 先祖의 行蹟과 明宗辛亥譜로부터 庚午譜까지의 編纂史는 東奎氏의 序文과 舊譜序에 詳細히 記錄되어 있음으로 重複을 避하기 爲하여 言及치 않기로 한다 人間은 太初부터 今에 이르기까지 死한 사람이 數千萬에 달하는 法則을 倖저리게 體驗하여 왔다 國家 社會 家庭을 莫論하

고 團合하면 興하고 分裂하면 亡한다는 것이 不變의 鐵則으로 되어 있다. 그럼으로 우리 一族도 融和團結해서 相扶相助로 좀더 잘살아 보자는데 이 世譜編纂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不肖 昇奎 비록 不敏하나 花樹會道支部를 結成하고 其責任者로 宗中之事를 보는 동안 時代에 順應한 修譜의 必要性을 痛感케 되어 西紀一九六〇年 庚子 八月二十九日 總會에서 時代潮流에 따라 現代의 實情에 알맞게 修譜編纂기로 決議하고 推進任員을 選出하였다. 그러나 나의 力量不足으로 任員의 活動을 期待할수 없게 되어 單獨으로 刊行部數를 擴張하기 爲하여 各部落을 數次巡廻啓蒙하였으며 나는 公職에 服務中임으로 夜間과 公休日等 執務의 餘暇를 利用하여 收單을 整理하고 比較的 順調롭게 推進中 翌年辛丑五月에 軍事革命이 일어났다. 이 革命은 修譜推進의 沈滯를 不可避하게 하였으며 雪上加霜으로 同年秋에 親喪을 만나 事業의 中斷을 免치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經濟不安定이 비저낸 物價高로 當初豫算과는 顯隔한 差異를 招來케 되어 더욱더 難關에 逢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膠着狀態의 原因을 他에 轉嫁하거나 누구를 怨望함이없이 오로지 나의 不敏의 所致라고 自責하면서 牛步遲遲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는 하지

만 初志一貫 努力하면서 在日諸宗에게도 協助를 呼訴하여왔다 西紀一九六三年四月三日 咸朴洞墓所에서 修譜事業을 急速終結키로 決議하였으나 財政調達問題가 가장 難題로써 解決策이 漠然하였다 日本에서 客苦中인 從兄東奎氏는 過去부터 先塋에 對한 碑石建立 等 爲先事業에 功勞가 많은분으로서 修譜推進의 不振을 痛嘆히 生覺하고 澄奎 圭洪 寬 信 三氏와 協議해서 四人이 巨額의 私財를 快擲하여 修譜刊行費를 專擔키로 斷案을 내 리고 癸卯五月에 急據歸國하였으니 이는 永遠히 記念될 千三百餘諸宗에 對한 크나큰 膳 物이었다 그래서 五月二十六일 會議를 開催하여 이 事實을 公開하고 收單을 再整理해 서 六月十日 印刷開始함으로써 宿願인 修譜事業을 成就케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篤志 四宗의 至誠어린 私財據出의 結晶인 것이다 그림으로 生活품에 시달리는 道內諸宗은 篤志諸宗에게 衷心으로 드려운 感謝를 드려야 할 것이다 本譜編輯에 있어서는 庚午譜를 土臺로 하였으며 大隱傳 神道碑文等 古代記錄에 吐를달고 始祖兩位墓所圖와 大隱先生 中國留居吟과 訓練公事績을 追加하였으며 舊譜에 未載된 城邑派를 編入시키고 直講公의 行錄과 監察公의 行蹟文과 萬頃公의 行蹟文과 年代表와 李朝時代의 官制와 訓練公墓探

查記와 位土目錄과 各派居住實態表等을 追加하였다. 追錄에 對한 參考文獻은 萬頃公手
 記와 花樹會本部의 族譜와 思陵基邦氏所藏의 家乘과 城邑派家乘과 朝鮮歷史等이다. 內
 容에 있어서도 庚戌國恥以後의 年號는 世界共通年號인 西紀를 使用하고 墓所를 番地 또
 는 한글로 表示하는等 現代化로 革新하는데 努力하였다. 內容을 細密하고 正確하게 編
 輯하려고 單獨孤軍奮鬪하였으나 役巨力小로 欠陷이 非一非再임을 自認하면서 諸宗의 諒
 解를 求하는바이다. 其中 가장 重要한 것을 掲載치 못한 것이 있으니 卽 文獻求得難으
 로 大隱先生實記를 掲載치 못한 것이다. 이는 나의 遺恨으로서 實로 痛嘆을 禁치 못하
 는 바이다. 修譜推進 三年間의 諸經費(旅費用紙代 通信費 整理費 雜費)는 篤志諸宗이
 나 道內諸宗에게 負擔을 시키지 않고 編輯者가 專擔하는바 나의 犧牲精神으로 編輯한 이
 世譜가 尊祖敦族에 多少라도 도움이 된다면 多幸으로 生覺하는 바이며 本譜三百九十餘
 部를 無償配譜함에 있어서 東奎氏의 意圖가 他에 있는것이 아니고 同宗間에 敦睦之風
 을 이르켜 相扶相助 團合토록 하자는데 있는만치 僉宗各位는 覺醒하고 더욱 團結하여
 先塋을 爲한 爲先事業이나 後生을 爲한 事業을 莫論하고 合心盡力하여 殊것을 祈願하

면서 북을 멈추는 바이다

西紀一九六三年 癸卯歲暮 原川府院君十九代孫 昇奎 謹記

序 (癸卯譜)

恭惟我遑氏始祖 原州君大隱先生諱安烈이 自中華而東來尙矣라 當麗季而竭力禦寇之巍勲
 斗 盡忠殉國之壯節이 焜耀史乘而 猗與三角山漢陽波로 不磨盡焉則 鄭圃隱 李牧隱 吉治
 隱三先生祭文이 垂之無窮矣라 豈不美哉아 繼而李朝初에 其孫中郎將諱世清이 懷嘉遯志而
 南入于海하니 濟州之遑이 亦自始焉이라 嗚呼라 祖宗積慶이 已過半千有餘載而振振子姓이
 充溢區宇하야 科宦文行이 譜不絕書하고 且今科學이 漸開而 宇宙之通行이 甚非昔日比則
 後裔之或散在海外者亦多焉이라 于斯時也에 要當收宗族明譜學하야 相勉其不忘本이 不亦
 可乎아 謹按明宗辛亥譜는 原州七世孫參奉循이 踵其前府使成之四世譜而成焉者라 二公序跋
 이 斑斑可詳而宣祖庚辰에 循이 又與同譜內外孫二百餘人으로 追尋始祖墓而共樹神道碑할세
 觀察使朴公承任이 撰之하고 礪城尉宋公寅이 書之則 若循은 眞可謂篤於追孝矣라 蓋其尊

祖敦族之心이 豈非後世之所則者乎아 越正祖庚申에 譜又大修而刊行焉하니 終始主其事者
 는 曰十三世孫益齡光翼也라 金承旨若鍊公이 序之而賀其斷自原州君爲譜가 深得慎重之道
 則 又安得不起敬於益齡公之跋文이리오 若吾濟州一派는 祇緣海天이 悠遠하야 合譜猶難이
 나 然以始祖而視之면 均是子孫也니 親疎遠近之分을 復何論哉아 嗚呼라 卽將公이 以其
 原州之三子十一孫之一로 處乎國家革命之際하야 忠義心法이 相傳於一堂之內而愈久不衰하
 고 孝悌聲氣가 相通於千里之外而愈遠不忘이라 厥後之克昌이 至于英祖正祖純祖三朝盛際
 에 文紳이 輩出하야 以振家聲焉하니 若文參判是重及 文直講聖遇 文注書聖運 武監察聖輔
 及 文參判景祐 文學諭景俊 文縣令景鵬諸公이 是耳라 俱於卽將公에 九十一代孫則 可見
 祖宗之德蔭未艾之海嶽之聚精을 亦不可誣焉이라 大凡先王之教管攝天下人心하야 使人不忘本
 而厚風俗者 莫先於修譜라 故로 光武庚午에 宗族僉議以卽將公으로 立爲中祖하야 始刊派譜
 而使圭遠甫로 序而行之者今遽經三十年則 一世而一修譜는 古例然也오 而嘗因黃鼠之災하야
 或不能保藏其譜者多矣라 東奎雖不敏而浪走無端이나 庶幾念祖一心이 恐其修譜之易失時하
 고 因以歸省先阡而謀於僉宗諸族하야 使從弟昇奎로 汲汲續修之하야 正其或訛하고 補其或

闕而叙其世承之少幼者를 罔有遺漏하야 乃與在外之澄奎寬信圭洪으로 擔其刊費而告成焉하
 니 豈敢曰述事리오마는 昇奎는 非但勤勞譜役이라 亦嘗千里涉海하야 追尋郎將之先府君判
 訓公墓而 贊其改封하고 定其歲薦焉하니 夫以一身으로 代我衆孫之誠力이 庶可謂南州之後
 參奉耶아 由是로 漸通於大陸宗派而合譜가 必有其日이로되 惟願僉宗은 益勉譜義而 振興
 孝悌敦睦之風於一方하야 將仕天下로 同歸於仁厚之俗則 吾遺本支百世之文獻이 寧有墜地
 之理乎아 猥以拙筆로 書之卷端하야 以待來裔之觀感於無疆云이라

歲癸卯冬(一九六三年)原川府院君十九代孫 東 奎 謹序

舊譜序(庚午譜)

吾原州遺氏之先은 本子姓이니 殷王之裔오 宋侯之后也라 至平公의子 諱御戎字子遺하야
 有孫諱卬하니 因以遺爲姓하고 官大司徒하야 世居隴西陳留金城武秋等地러니 汴宋之初에
 有諱鏡하니 以門下習祕侯大阿餐으로 居關西洪陵하고 世襲官爵이러니 三傳至諱有寧號石
 川翁하야 以宋判으로 浮海東來하고 仕高麗하야 拜中門祗候하고 封淵城君하니 寔長淵氏之

始也오 七傳至諱呂하야 封泰川伯하고 居取城하니 寔黃州氏之始也오 十二傳至諱順하야는
 入仕元하야 封藩陽侯하고 有孫諱安烈하니 以三司公으로 尙長公主下嫁時에 刑部尙書兼首
 將으로 爲陪臣東來하니 高麗恭愍王이 拜三韓三重大匡門下贊成事兼禮儀三司事하고 封原
 川君하니 寔吾所宗原州氏之始也라 於戲라 原川君留東國이 凡四十稔矣라 遭國多亂之際하
 야 出將入相하고 杖義扶麗라가 值覆社之際하야 遺訓이 戒孫與子曰 耽羅는 眞今世之桃
 源이라 爾曹隱遯이 莫貴於耽羅라하고 而已與鄭文忠公諸賢으로 同殉國하니 世稱五隱之一
 也오 有季房孫諱世清하니 以中領中郎將으로 耻事二姓하고 奉父祖之遺訓하야 遽然脫屣하
 야 倣磬囊於海上하니 耽羅之邊氏實祖於此矣라 自茲以來로 累百載慷慨奮義하고 隱德不市
 하며 囂囂林泉하고 自靖其志하니 植根이 固矣며 滌源이 深矣라 傳至九十十一世하야는
 簪組가 聯出하고 文行이 繼世하며 孝烈이 傳家하니 信所謂混混長源이요 蔚蔚洪柯者矣라
 於戲라 世漸遠而澤寢斬하고 澤寢斬而服祖免하며 服祖免而如塗人은 勢無如之何矣則尊祖
 收族이 莫貴於修譜라 乘而家藏庚申譜는 (正祖庚申)原川君以後内外子姓이 宗支詳焉이요
 竹泉處士諱用能家錄은 上溯得姓前後하고 爰及宋公 世次名諱與履歷之略載하니 吾遺氏之

文獻이 幸傳不墜者는 實萃於其中矣라 第其年代綿遠하고 記錄이 杳茫하야 上焉而眞訛之
 相蒙이 或恐不免於萬一이요 下焉而同族遠近을 一例合錄에 無以別異는 況今距庚申이 恰
 三週甲이라 此修譜之事를 不可以曠也니라 大譜는 不可卒卒議나 蓋吾中祖始乎아 卽將公
 子姓이 謹立派譜之議하야 經始有年에 幸至今春하야 功告成矣而以圭遠之孤寡로 謬居攷校
 之役하야 不暇廣搜博採而本之庚申하야 以正其始하고 叅之家錄하야 以致其詳하니 其因草
 은 必有疎記오 其迷茫附之傳疑는 蓋有百世俟後人之意而不敢以今日苟簡之編으로 爲吾
 事已了也니라 若夫尊祖惇族之意로 以興起孝悌之心者는 舊譜序述이 備矣라 此不架疊爲
 也라

歲庚午元朝原川府院君十九代孫 圭 遠 謹序

舊譜序(庚申譜)

遑氏之貫原州는 自領三司公始하니 其先은 子姓이라 出自宋微仲하야 至平公의子 御戎
 하야는 字子遑이라 子孫이 遂以字爲氏하다 正與孔父嘉之孫之爲孔氏者로 同하니 一時王

之典也라 其後에 世居隴西라가 汴宋之季에 浮海東來하고 高麗高宗時에 有諱呂하니 以功
 으로 封泰川伯하다 自是로 厥後或留宦麗朝하고 或入元氏라가 至三司公하야는 隨恭愍王
 하야 復歸于東하고 封原川府院君하니 於是에 貫以原이라 迄于今十有餘世에 世有譜牒而
 今年庚申에 始成印本하야 編之曰原州遺氏世譜라하고 屬不佞序其事하니 嗚呼라 三司公이
 丁麗運將絕之際하야 巍勲懿節이 載在國乘하니 夫何待後人之讚揚哉리오 雖然이나 自古로
 有國之末에 天必生忠義俊傑之人하야 或爲之竭力禦寇하고 或爲之盡節殉國하야 迄萬世爲
 人臣標準者世不無其人이로되 而一人之身으로 兼是二者는 求之百世에 罕與公比焉하니 吁
 其偉哉저 由三司公以上은 邈矣라 不可詳矣로되 由三司公以下는 世有名碩하야 或文或武
 로 簪纓이 不絕하니 益可驗源遠而流長하고 根深而枝茂者矣라 是豈與偶然崛起於一時하고
 而無德業以垂於後者로 比哉아 宜其雲仍之繁이 歷十有餘世而不衰也라 然則今此譜牒之印
 行이 烏可以已也리오 余觀世之爲譜牒者 務博而不務精하야 或至貫鄉之已別而合以爲一譜
 하고 派系之不明而屬以爲一本하야 終未免淆雜眞贋之弊로되 而遺氏之斷自三司公始하야
 貫原州之後而爲譜者는 深得慎重之道而 正合譜牒之義하니 不佞이 敢不以一言으로 以賀其

美舉也리오 嗚呼라 遼氏之在諸道列邑者 皆三司之裔也라 本以一人之孫而 分而爲千百之身
 하야 散而居綿邈之地에 顔面之不相見과 吊慶之不相聞이 正所謂路人之不如로되 而乃今沿
 流而溯其源하고 由根而達其枝하야 系之一人之後而 合之一譜之中則 無論族之親疎와 地之
 遠近하고 不自覺油然而生孝悌之心하고 愴然而與敦睦之風矣니 是誠遼氏諸賢이 所其自得
 於其心者라 不佞이 亦何必贅爲之說이리오 三司公之七世孫 參奉公循이 實始收族作譜而今
 其足成全編하야 克就印本할세 終始主其事不懈者曰益齡은 居甫州하고 曰光翼은 居鶴城하
 야 於三司公에 爲十三世孫而益齡은 即不佞家自出之親也라

通政大夫行丞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 金 若 鍊 序

舊譜跋

我姓之出東國이 凡幾世而迄無印譜러니 歲甲寅冬에 姓兄塉氏自石城으로 冒風雪하야 薊
 足而至하니 以先祖摠制公祭田措置事也러라 因發譜議할세 余時在草土라가 與聞之曰此吾
 先生之志라하고 勸其普告遠近하야 丙辰에 剏于甫州寺之龍門할세 余與族弟光翼으로 共之

而聞寡見諛하고 事鉅力纖하야 至庚申에 劓劓之役이 訖하니 今距府院君에 四百有餘禩니 譜牒之成이 蓋亦有時也라 若其闕略訛謬處則俟後之續而修者하노라

後孫 益 齡 謹識

舊譜序(辛亥譜)

遼氏出於瀋陽하야 世仕元朝러니 至正十一年辛卯에 順帝以高麗王子江陵君으로 作甥하
고 君이 率妃至本朝即位하니 是爲恭愍王이오 妃는 卽魯國大長公主也라 我高祖以首將으
로 陪來하야 拜三韓三重大匡門下贊成事兼判禮儀三司事原州府院君하고 高麗之季에 出將
入相이러니 耦王六年에 倭賊五百艘泊於鎮浦하고 入寇于下三道하야 屠燒州郡하고 殺虜人
民하야 所過波血이라 耦以李侍中으로 爲楊廣全羅慶尙三道都巡察使하니 時에 我高祖贊
成事兼副元帥로 大捷于雲峯하니 賞賜巨萬하고 常率私兵二百하야 若有倭變이면 卽率進擊
하야 無往不捷이러라 開國之初屯難之時에 威權이 甚重이러니 虛得謀迎耦之名하야 竟至被
禍하다 有三子一女하고 肅이 亦以姪子로 陪來하야 爲戶部典書하고 其子孫이 居于白川

하니 此亦同姓이라 故로 並記于譜末하노라

府院君四代孫鐵原都護府使成 謹序

舊譜跋(辛亥譜)

余少失嚴儀하야 旣無面承하고 又無家乘하야 不能知先系之所自出하고 又不知總功之親하야 雖相與遇라도 不知兄是某祖之孫이오 叔是某祖之子하니 是余有今日無窮之恫也 玆用有意於修譜者 蓋有年紀로되 而家禍連綿하야 式末之果也려니 歲庚戌春에 偶訪族叔洪氏于其第하야 相與序族할세 取出譜牒하야 考祖宗之所從하고 知流源之所自然後에 愀然語余曰 此乃王父府使公之所撰이오 將欲取梓라가 事未就緒하야 齋志而沒者也라 噫라 今獲此牒於勤搜博訪之餘하니 天其或者컨대 盖亦有待於今日也라 卽袖以來하야 補其所闕하고 證其所訛하야 曾未兩歲에 乃克成編하니 功已過於先門丈所未之詳者也라 嗚呼라 人之有子有孫이 如水之分派하고 如木之敷枝하야 窮其源則同也오 反其本則一也라 豈可以枝派之相遠으로 視同路人也哉아 而我東方이 國無譜牒之法하고 人無家乘之修故로 雖巨家大族이라도

